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로체시스템즈 (071280)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수혜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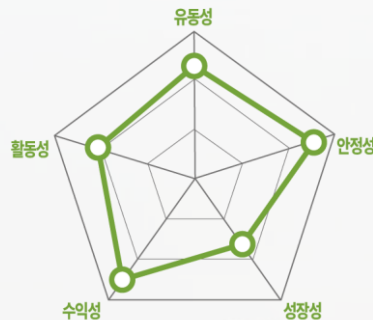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류이송장비 등을 영위하는 IT장비기업. 설립초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여, 반도체 장비로 제품 다각화를 진행. 지배구조로 Rorze Corporation - Rorze International - 로체시스템즈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기업인 일본 Rorze Corporation은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로, 모터 제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 투자포인트는 1)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 수혜 기대, 2) 주 고객의 해외 설비투자 증가로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 성장 기대
- 리스크 요인은 폴더블폰 산업이 예상 외로 부진할 시 동사 실적이 일정 부분 악화될 가능성 有
- 로체시스템즈는 2026F PER 5.7배로 거래 중. 향후 AI發 수혜가 지속되며 메모리 반도체 투자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지속적으로 지속된다면 2025~2026년 연속적인 기업가치 약세 국면을 딛고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가능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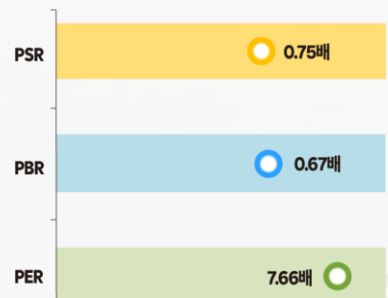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로체시스템즈 (07128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지은 jekim0216@kirs.or.kr

KOSDAQ

반도체와반도체장비

로체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장비 전문기업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설립된 일본계 IT장비 전문기업.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부문 48.4%, 반도체 부문 44.7%, 기타 6.9%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發 업황 강세 지속 중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 제한된 공급능력 상황이 맞물리며 강한 업황 상승 국면. DRAM·NAND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당분간 높은 수익성 구간을 유지할 전망.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IT용 OLED와 폴더블 OLED가 신규 수요를 형성 중.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 첫 폴더블폰용 OLED 단독 공급에 따른 후공정 대응 본격화 예상.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 공급 업체 수혜 기대

로체시스템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황 강세 수혜 기대

2026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1,595억 원(+27.7% YoY), 영업이익 193억 원(+33.5% YoY) 전망.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수혜가 실적에 반영될 전망. 2025~2026년 연속적인 기업 가치 약세(주가 2025년 연간 -50.1%, 2026년 YTD -30.5%)로 동사는 현재 현저한 저평가.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이 부각되며 기업가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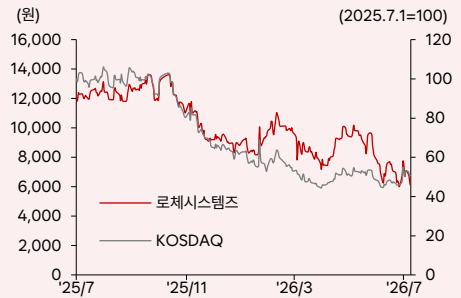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46	1,053	1,601	1,249	1,595
YoY(%)	31.2	-27.2	52.1	-22.0	27.7
영업이익(억원)	264	119	198	144	193
OP 마진(%)	18.3	11.3	12.4	11.6	12.1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3	89	121	123	168
EPS(원)	1,324	580	792	801	1,096
YoY(%)	114.1	-56.2	36.6	1.2	36.7
PER(배)	6.0	10.7	22.3	11.0	5.7
PSR(배)	0.8	0.9	1.7	1.1	0.6
EV/EBITDA(배)	3.3	4.1	10.5	4.8	1.5
PBR(배)	1.2	0.9	2.2	1.0	0.6
ROE(%)	21.5	8.2	10.4	9.4	11.5
배당수익률(%)	0.6	0.8	0.3	0.6	0.8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07/09)	6,250원
52주 최고가	13,610원
52주 최저가	6,030원
KOSDAQ(07/09)	794.00p
자본금	76억원
시가총액	956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12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11억원
외국인지분율	45.02%
주요주주	Rorze International 외 2인 43.6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2	-24.8	-48.0
상대주가	10.7	-10.2	-48.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 로체시스템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설립된
IT장비 전문제조업체**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물류이송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IT장비 전문제조업체이다. Glass Cutting Machine을 비롯하여 반도체용 Mobile Robot · EFEM, 디스플레이용 Index · Sorter · Stocker · Module 장비 등 다양한 공정 장비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로체시스템즈는 1997년 11월 설립된 이후 1998년 LCD Glass Indexer(Glass 이송장비)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2000년 로체시스템즈는 반도체 웨이퍼 300mm용 EFEM(웨이퍼 이송장비), Load Port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 시기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태동기였다고 볼 수 있다.

2001~2010년 기간은 로체시스템즈에게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2001년 주 고객인 삼성전자로부터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대표이사 과학기술부 장관상 및 모범경제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3년 동사는 Laser GCM(Glass Cutting Machine) 관련 비금속재료의 절단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한편, 기술혁신(Inno-Biz) 기업으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03년 로체시스템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04년 7세대용 LCD 이송장비를 당시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2005년 GCM 장비 관련하여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였다. 2009, 2010년 연속해서 박기환 대표이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11년 이후 시기는 사업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확립기라고 볼 수 있다. 로체시스템즈는 설립 이후 상당기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전문성과 기술력을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업황은 업황 호황과 불황이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된 편이어서 동사는 전략적으로 실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로체시스템즈는 단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사업 비중을 높이며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다. 2017년 기준 동사 매출액 중 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은 87.8%에 달했으나 2025년 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은 48.4%로 낮아졌다. 즉 점진적으로 반도체 장비 등의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한편 2011년 이후에도 동사는 다양한 수상을 이어갔다. 2014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15년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도 받았으며, 2021년에도 대표이사 과학기술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해외 진출의 경우 2015년 베트남에 'RORZE SYSTEMS VINA CO., LTD'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주 고객 관련 대응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도 한층 확보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로체시스템즈는 설립 초기부터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관련 높은 기술력으로 대형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한편, 반도체, 모듈(FPCB) 장비 등을 점진적으로 개발/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낸 기술력 높은 IT장비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1개사 보유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RORZE SYSTEMS VINA CO., LTD 1개사를 보유 중이다. RORZE SYSTEMS VINA CO., LTD는 베트남 현지에서 각종 장비를 제조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고객의 생산라인에 제품을 설치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동사 지분율 100.0%).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매출은 크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2개 부문으로 구분

로체시스템즈 매출액은 크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2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디스플레이 부문 48.4%, 반도체 부문 44.7%, 기타 6.9%이다. 각 부문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패널 생산업체의 신규 라인 증설과
기존라인 장비 개조/개선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1) 디스플레이 부문(매출액 중 48.4%)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인 IT 장비/부품산업이다. 동사 디스플레이 부문은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산업과 관련 고객들의 환경 및 업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전방산업인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멀티미디어제품의 시장 수요, 성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 부문은 패널 생산업체의 신규 라인 증설과 기존라인 장비의 개조/개선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로체시스템즈는 설립 초기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개발/제조 및 판매로 성장하였고,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제품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아 왔다. 주요 제품으로 Indexer, Laser GCM(Glass Cutting Machine), 모듈장비(Bending Machine) 등이 있다.

Indexer는 패널 제조 공정으로
투입된 Glass(유리)를 각 공정 간
자동화하여 이송하는 장비

✓Indexer(Glass 이송장비)

패널 제조 공정으로 투입된 Glass(유리)를 반송전용 Robot이 포함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해당 공정장치까지 이송, 적재함으로써 각 공정 간 자동화 이송 역할을 하는 장비/장치이다. 공정 중 오염물(Particle) 발생을 극소화시키는 청정 공정용(Clean) Robot을 사용하며, 이송시간을 줄이고 제조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Double Arm Robot을 주요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다. Glass 이송장비로는 업계 최초로 S-Mark(안전인증마크)를 획득,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송간 Glass의 처짐현상을 개선한 새로운 End Effector(Robot Hand) 방식인 다중지지대형 로봇핸드와 틸팅방식이 동 제품의 특징이며, 다양한 사이즈의 패널 라인에 맞춤형 제품을 적용 가능하다.

Index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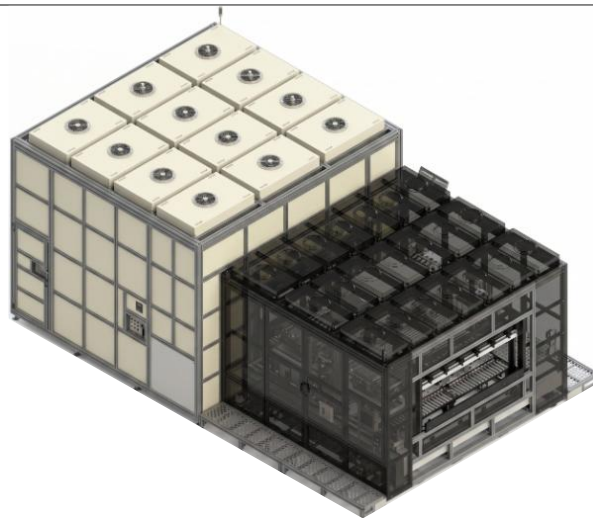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aser GCM은 Laser Beam을
이용한 비접촉식 차세대 Glass
Cutting용 장비**

✓Laser GCM(Glass Cutting Machine)

Glass 생산공정 중 원판유리를 자르는 공정에서 Laser Beam을 이용하여 단독의 Scribe 및 Breaking 공정의 통합수행이 가능한 비접촉식 차세대 Glass Cutting용 장비이다. 기존 장비가 다이아몬드 휠을 사용, 절단을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Laser를 이용한 Glass 절단은 기존의 다이아몬드 휠 커팅방식에서의 Chipping과 진행성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극청정, 고강도, 고품질 절단이 가능하다. 제품 라인업으로 Glass Half Cut Laser Scribe, Glass Laser Precut Scribe, X-ray Panel Laser Cutter 등이 있다.

Glass Half Cut Laser Scri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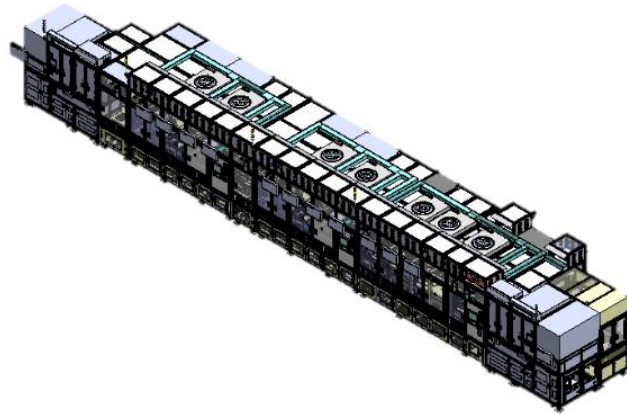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모듈 장비는 패널의 Align을
확인하고 틀어진 정도를 보정한 후
Bending 공정을 진행**

✓ 모듈장비(Bending Machine)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 중 Module 공정에 사용되며, FPCB가 부착된 Cell을 단축 조합 Robot을 이용하여 각 공정 Stage에 이송, 안착시킨 후 Vision Camera를 이용해서 패널의 Align(정렬)을 확인하고 틀어진 정도를 보정한 후 Bending 공정을 진행하는 장비이다. 패널에 연결되어 있는 PCB/FPCB를 제품 조립이 용이하도록 Bending하여 패널에 정밀 부착 및 검사가 가능한 장비로, Flat Display Panel, Foldable Display Panel, Panel 4면 곡면 대응이 가능하다. 제품 주요 특징으로 1) 다양한 패널 사이즈에 맞춤형으로 대응 가능하고, 2) 고정밀 벤딩 공정에 적합하며, 3) 업계 최고의 안전성과 높은 수율을 보장하는 점을 들 수 있다.

B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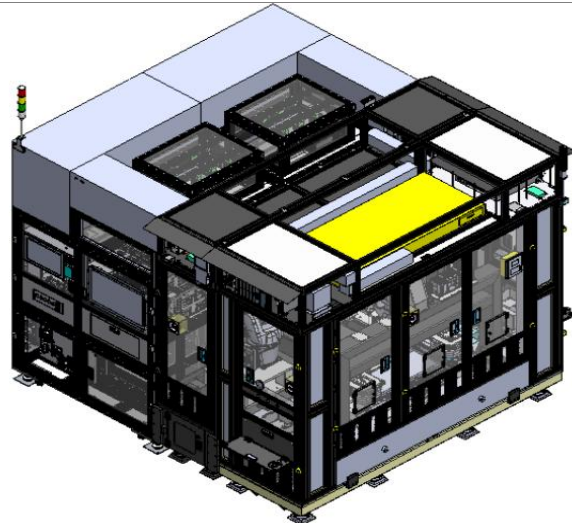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UTG 검사 장비는 Ultra Thin Glass 단면의 이물과 Crack을 검사

✓ UTG 검사 장비

얇고 휘어지기 쉬운 Ultra Thin Glass(UTG) 단면을 개별 취출하여 Edge 부분의 이물과 Crack을 Inspection(검사)하는 장비이다. 폴더블폰용 UTG 생산 제품에 맞춤형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고정밀 검사가 가능하며, Chipping, 깨기, 가공불량, Burr(Remain) 등 다양한 검사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

UTG 검사 장비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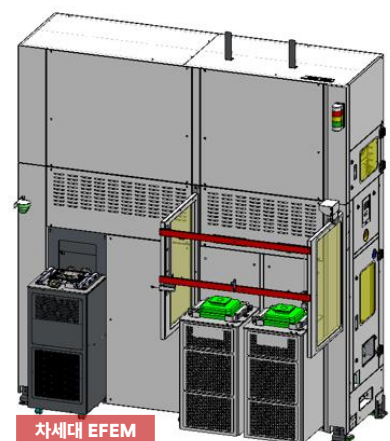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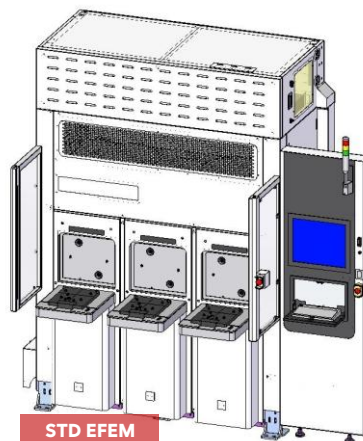
2017년 이후 반도체 장비로의**제품군 확대 중****Wafer EFEM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FOUP 내부의
웨이퍼를 공정 장비로 공급****2) 반도체 부문(매출액 중 44.7%)**

로체시스템즈는 설립 초부터 성장기까지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나, 2017년 이후 반도체 장비 매출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TV, PC 산업의 저성장 기조/경향 속에서 경쟁이 크게 심화되어 업황 부침이 심했기에 동사는 반도체 장비로 제품군을 확대하여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하여 왔다.

✓Wafer EFEM 장비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제품으로는 Wafer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장비가 있다. EFEM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FOUP 내부의 웨이퍼를 공정 장비로 공급해주는 전면 모듈(Equipment Front End Module)로서, 이동·로딩/언로딩·정렬 등을 담당한다. FOUP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를 담아 이송·보관하는 표준화된 캐리어로, Front Opening Unified Pod의 약칭이다. 클린룸/랩 환경에서 외부 오염 유입을 줄이고 자동이송(AMHS)과 장비 로딩·언로딩에 연동되는 주요 공정 구성품이다.

EFEM 장비의 핵심 기능은 1) FOUP 내부 웨이퍼를 공정 장비 챔버로 공급하는 이송 모듈 역할을 수행해주고, 2) 로딩/언로딩, 웨이퍼 정렬 등 전면 모듈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공정 효율과 안정성을 높여주며, 3) FFU 연동 모드(차압 연동 등)로 공정 환경 제어를 지원한다.

300mm Wafer EF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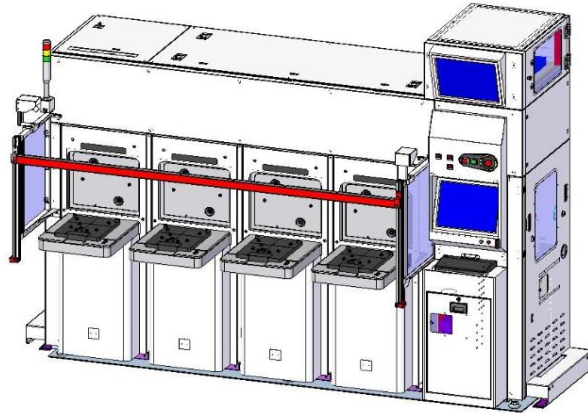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orter는 Wafer Sorting 및 Merging(분류 및 통합) 기능을 수행

✓ Sorter

Wafer Sorting 및 Merging(분류 및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고객은 동 제품을 통해 높은 수율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 부가적인 특정 검사 등 개별 요구사항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다.

So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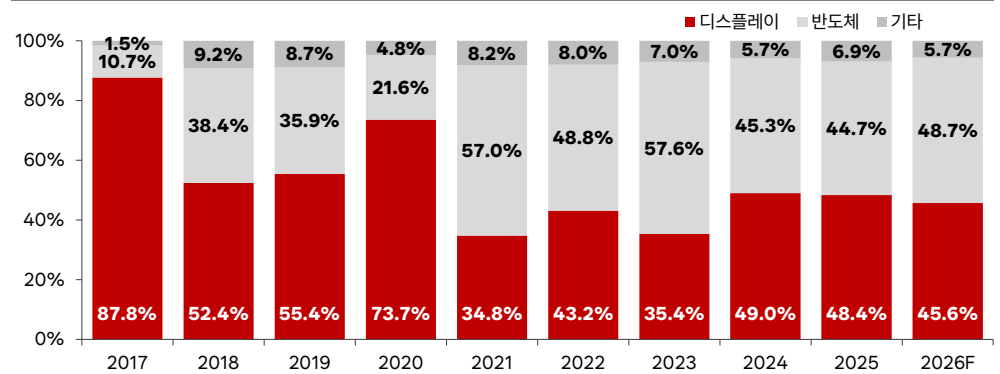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밖에 반도체 장비 제품으로 Wafer Stocker(웨이퍼 보관장비), Mobile Robot(AMR, 자율주행로봇), Near Tool Buffer(반도체 클린룸에서 OHT로부터 해당 장비로 FOUP을 전달받는 장비) 등이 있다.

3) 기타(매출액 중 6.9%)

기타 매출은 상품 매출, A/S 서비스 매출, 교육 컨설팅 서비스 매출 등이다.

로체시스템즈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다양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

3 주 고객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기업들

로체시스템즈는 다양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고객에는 삼성디스플레이, Corning, BOE, Tianma, CSOT 등이, 반도체 관련 주요 고객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attson Technology 등이 있다.

로체시스템즈 주 고객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대주주 등은 Rorze International 외 2인으로, 지분을 43.64%를 보유

4 최대주주 등은 Rorze International 외 2인

로체시스템즈의 최대주주는 Rorze International로, 동사 지분 40.14%를 보유하고 있다. Rorze International은 일본 Rorze Corporation의 100% 자회사이다. 최대주주 등은 Rorze International 외 2인으로, 2026년 3월말 기준 지분율은 43.64%이다. 지배구조는 일본 Rorze Corporation이 상단에 위치하고, Rorze International이 중간에, 로체시스템즈가 하단에 위치한다. 즉 Rorze Corporation - Rorze International - 로체시스템즈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이다.

모기업인 일본 Rorze Corporation은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로(티커는 6323), 모터 제어와 각종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타 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2026년 7월 9일 기준 시가총액은 8,097억 엔이다. 사키야 후미오씨가 오너로서 Rorze Corporation 지분 35.12%를 보유하고 있다.

Rorze Corporation 재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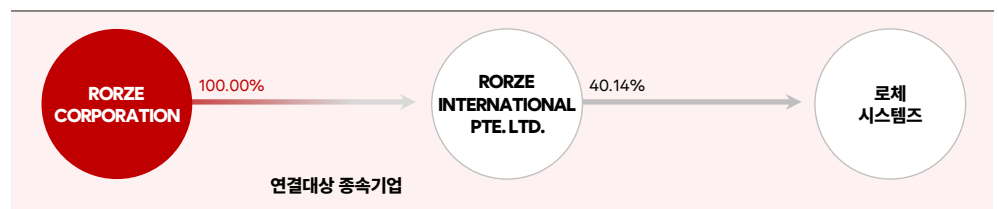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RORZE CORPORATION	1,806	568	1,238	1,128	290	210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 2025년 2월 28일 기준 재무현황

로체시스템즈 지분 현황



주: 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현황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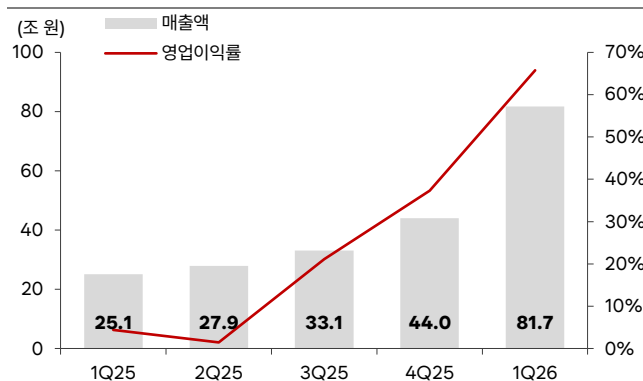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5년 하반기 이후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icron 등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업황의 사이클은 특정 업체의 개별 요인보다 산업 전반의 수급 병목에 기인한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HBM(고대역폭 메모리), 고용량 DDR5, eSSD(기업용 SSD)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그간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업들의 생산능력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매출액 971조 원, 영업이익 47.2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황 호조와 제품 경쟁력 확보로 2024년 매출액 66.2조 원, 영업이익 23.5조 원 대비 큰 성장을 이루었다.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HBM 분야 선두의 모습을 확인시켰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52.6조 원, 37.6조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8%, 405%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71.5%까지 상승했다.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였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이 전망됨에 따라, 2026F 연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357.8조 원(+268.3% YoY), 영업이익 276.8조 원(+486.3% YoY)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6년 1분기 매출액 81.7조 원, 영업이익 53.7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5%, 영업이익은 4,782% 증가했으며, DS 부문 영업이익률은 66%에 달했다. 이 중 메모리 사업 매출은 74.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메모리 사업부 실적 호조 지속에 힘입어, 2026F 전사 기준 연간 매출액 732.5조 원(+119.6% YoY), 영업이익 383.2조 원(+779.0% YoY)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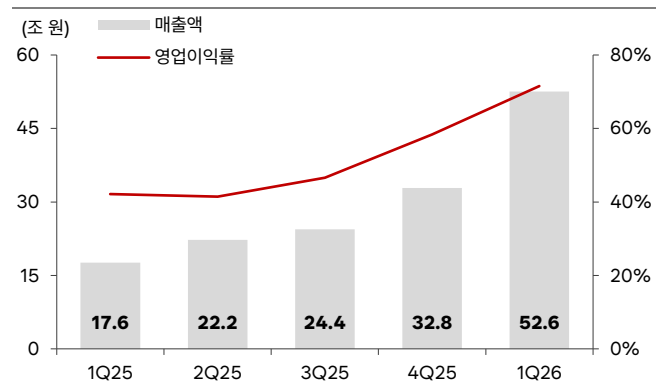
Micron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Micron은 8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분기 기준은 다르지만, 2026년 3분기 기준 매출액 414.6억 달러, GAAP 영업이익 333.2억 달러, 영업이익률 80.4%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7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6% 증가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드런스도 500억 달러 내외로 제시하며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6년 7월 현재 마이크론의 2026F 회계연도 컨센서스는 매출액 1,290억 달러(+245.2% YoY), 영업이익 973억 달러(+895.8% YoY)이다.

삼성전자 DS 부문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삼성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SK하이닉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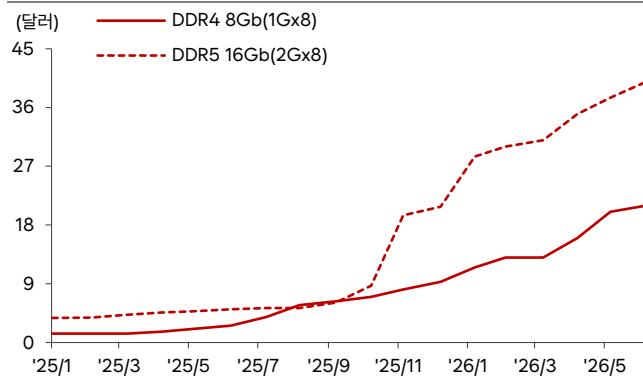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 제한된 공급능력 상황 속
강한 상승 국면**

수요 측면에서는 AI 컴퓨팅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AI 수요는 기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에이전틱 AI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버당 메모리 탑재량과 데이터 저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DRAM 수요가 비트 기준 20%대 성장, NAND 수요가 10%대 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서비스 확대 및 기업용 LLM(Large Language Model) 도입, 신규 GPU-CPU 플랫폼 출시가 서버용 DRAM과 SSD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제한된 생산능력이 가격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메모리 업체들은 HBM과 서버용 첨단 제품에 웨이퍼 투입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용 DRAM과 성숙공정 제품군까지 공급 부족이 확산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 기준 2026년 1분기 범용 DRAM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93~98% 상승했고, 1분기 글로벌 DRAM 업계 매출은 97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81% 증가했다. NAND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6년 1분기 NAND 계약가격은 당초 전망치인 55~60% 상승 폭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며, 1분기 글로벌 NAND 5대 업체 합산 매출은 38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83.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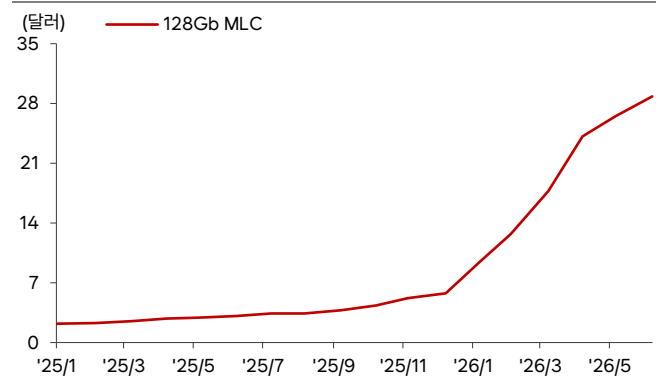
종합하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 제한된 공급능력 상황이 맞물리며 강한 업황 상승 국면에 있다. 메모리 3사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고, DRAM·NAND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당분간 높은 수익성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업황 호조는 결국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신규 팹 증설과 기존 라인 보완에 나서며 전공정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 증가가 기대된다.

DRAM 고정가 추이



자료: TrendForc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NAND 고정가 추이



자료: TrendForc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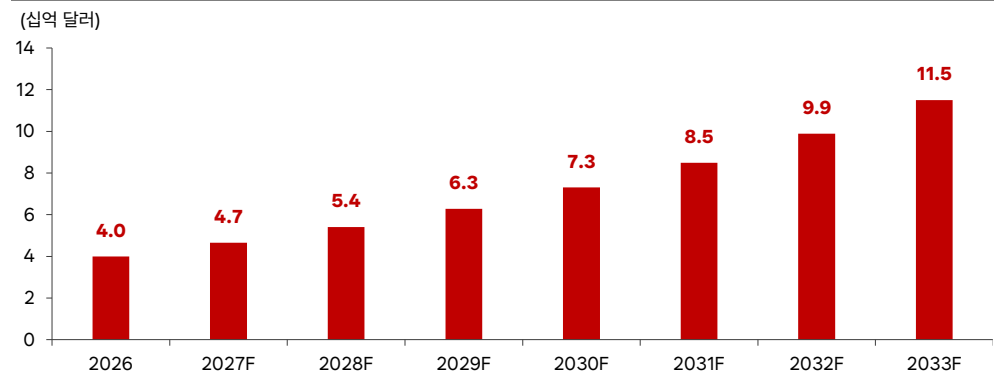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및 OLED 산업 현황

디스플레이 산업은 IT용 OLED와 폴더블 OLED가 신규 수요를 형성

디스플레이 산업은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가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성장의 중심 축이 IT 기기용 OLED와 폴더블 OLED로 이동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계절적 비수기, 스마트폰 수요 둔화, 메모리/비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패널 원가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태블릿·노트북의 OLED 전환과 폴더블 제품 확대가 신규 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8.6세대 OLED 라인 양산과 후공정 투자가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IT용 OLED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IT용 대면적 OLED 패널 출하량은 2025년 2,580만대에서 2026년 3,170만대로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34% YoY)과 모니터(+65% YoY)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노트북용 OLED 패널 시장은 3Q26 맥북 프로 OLED 출시를 계기로 성장이 가속화되며 2026년 40억 달러에서 2033년 115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트북용 OLED 패널 시장 규모



자료: Omdi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IT용 OLED의 확산을 위해서는 8.6G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

IT용 OLED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6세대 라인 중심의 생산 체계에서 8.6세대 라인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패널에 최적화된 6세대 원판으로 노트북·태블릿용 중대형 패널을 생산할 시 면취율이 떨어져 패널 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세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OLED 채용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8.6세대 유리원판은 2,290mm×2,620mm 크기로 기존 6세대 1,500mm×1,850mm 대비 면적이 약 2.25배 넓다. 이에 따라 14인치형 노트북 패널 기준으로 원판 1장당 생산 가능 수량은 기존 32장에서 88장으로 증가한다. 원판 면적은 2.25배인데 생산 수량은 2.75배로 늘어나는 만큼, 8.6세대 라인은 중대형 IT 패널의 생산 효율을 높여 IT용 OLED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현재 8.6세대 OLED 투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4월 아산 캠퍼스 A6 라인에 4.1조 원을 투자해 월 1.5만 장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주요 설비 반입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7월 중 본격 양산 체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라인에서는 애플 차세대 맥북 프로용 OLED 패널이 생산될 전망이며, 공급 물량은 약 300만 대 규모로 추정된다.

BOE도 8.6세대 OLED 투자에 나서며 양산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BOE는 2023년 11월 청두 B16 공장에 630억 위안, 한화 약 13조 원을 투자하여 월 3.2만 장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6년 6월 17일 8.6세대 OLED 양산·제품 인도식을 개최하며 양산 시점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소폭 앞섰다. 다만 IT용 OLED는 스마트폰용 OLED보다 패널 면적이 크고 고해상도 요구가 높아 초기 양산 시점보다는 수율 안정화와 고객사 인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BOE의 초기 양산은 경쟁심화 요인이지만, 프리미엄 IT용 OLED 시장의 실질적 주도권은 안정적인 대량 공급 능력과 주요 고객사 대응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8.6세대 IT용 OLED 라인 양산 본격화는 후공정 투자로도 연결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4년 9월 베트남 박닌성 당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풍산업단지 내 기존 삼성 공단 인근에 최대 18억 달러, 약 2.4조 원 규모의 신규 OLED 모듈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해당 투자는 아산에서 전공정이 진행되는 8.6세대 IT용 OLED 라인의 노트북 패널 후공정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OLED 전공정은 국내에서, 후공정은 베트남·중국 등 해외 생산거점에서 수행하는 분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IT용 OLED 양산 확대는 국내 전공정뿐 아니라 해외 후공정용 모듈 공정 투자와도 연결된다.

삼성디스플레이/BOE 8.6G OLED 투자 주요 타임라인

	투자 발표	장비 반입식	라인 점등식	샘플 출하식	양산식
삼성디스플레이	2023년 4월	2024년 3월	-	2026년 1월	2026년 7월(예정)
BOE	2023년 11월	2025년 5월	2025년 12월	-	2026년 6월

자료: 전자신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디스플레이/BOE 8.6G OLED 생산시설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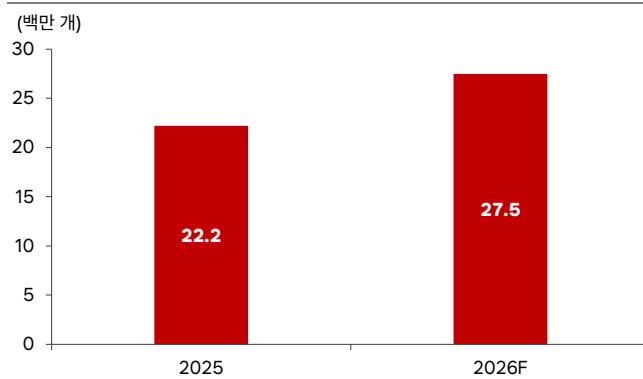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	BOE
생산시설 위치	충남 아산	중국 쓰촨성 청두
생산라인 명	A6	B16
총 생산 규모(유리원장 기준)	월 1.5만 장	월 3.2만 장
TFT 기술	옥사이드	저온다결정실리콘산화물(LTPO)
IT 주요 고객	애플	에이수스, 에이서

자료: 전자신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750만 개로 전망됨**

폴더블 OLED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또 다른 신규 수요 축이다. 2026년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은 2,750만 개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고, 매출은 약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폴더블 OLED 출하량은 약 390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으나, 연간 출하량의 64%가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폴더블폰 프로젝트가 폴더블 패널 ASP(평균판매단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더블폰 시장 구도도 기존 삼성·화웨이 중심에서 삼성·애플·화웨이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전망



자료: Counterpoin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애플 폴더블폰 예상 이미지



자료: 산업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폴더블
OLED 단독 공급에 따른
후공정 대응 본격화 예상**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용 OLED 패널의 단독 공급사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사는 3년간 폴더블 OLED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물량에 대응하는 전공정은 국내 아산 A3 공장이 담당하며, A3 라인은 7인치급 폴더블 OLED 기준 연간 1,500만대 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이다. 다만, 2026년 실제 초도 공급 물량은 약 300만개 수준으로 알려져, 당초 시장 기대치였던 1,000만개 내외를 하회하는 보수적 출발이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이 연간 700만개 이상일 것이라 예측하기도 하며, 향후 2027년 2세대 모델 출시 이후 물량 확대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폴더블 OLED 역시 후공정 대응이 중요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전공정과 후공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폴더블 패널의 모듈·벤딩 공정은 베트남 후공정 라인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로 파악된다.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은 복잡한 다중 힌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수율 등이 시장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패널 자체의 내구성뿐 아니라 접힘부 구현, 벤딩, 모듈 조립, 검사 등 후공정 안정화가 중요하다. 2026년 초도 물량은 보수적으로 시작되지만 하반기에 폴더블 패널 수요가 집중되고, 2027년 2세대 모델 이후 물량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어 후공정 라인 가동률 확보 및 보완투자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종합하면 OLED 산업은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IT용 OLED와 폴더블 OLED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축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8.6세대 전공정 투자는 투자 규모와 수율 및 수요처 확보 부담으로 삼성디스플레이, BOE 중심의 선별적 투자 국면에 가깝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황 초점은 2024년의 8.6세대 전공정 대규모 발주에서, 2026년 이후 양산 안정화와 후공정 보완투자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IT용 OLED는 대면적화에 따른 양산 수율 안정화가, 폴더블 OLED는 힌지 구조와 접힘부 내구성에 따른 모듈·벤딩 공정 안정화가 중요해지며 패널 이송, 커팅, 본딩, 벤딩, 모듈 조립, 검사 등 후공정 물류자동화 및 모듈 공정 장비 영역이 부각될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1 메모리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 수혜 기대

2022년 하반기부터 생성형 AI의 학습/훈련을 위한 AI 가속기 내 반도체 수요로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도 부각

2022년 하반기부터 OpenAI로 인해 생성형 AI 기술이 태동한 이래 초반에는 학습/훈련 위주로 AI 가속기 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여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성능 GPU 설계 및 GPU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도가 크게 조명되었었다. 이때 글로벌 Top GPU 설계사인 엔비디아가 부각되었고, 엔비디아의 생산 위탁을 대부분 처리하는 대만 TSMC의 제조 경쟁력도 주목을 받았다.

하드웨어 설계/제조의 중요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OpenAI, Google, Anthropic의 기술 경쟁 본격화

여전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GPU 설계/제조의 중요도는 유지되는 가운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선두권 AI 업체 3개사 OpenAI, Google, Anthropic이 각자의 제품 버전을 높이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생성형 AI 산업은 초기 OpenAI가 압도적인 1강 지위였으나, 2024년 상반기부터 3개사 경쟁 구도로 재편되었다. 2024년 5월 당시 Open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실시간 멀티모달 모델인 'GPT-4o'를 발표하며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Anthropic이 바로 다음 달인 2024년 6월, 텍스트와 코딩에서 GPT-4o 성능을 뛰어넘는 'Claude 3.5 Sonnet'을 출시하며 '성능은 클로드'라는 시장 인식을 심었다. 한편, Google은 2024년 5월,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Gemini 1.5 Pro'를 공개하며 100만 토큰(책 수십 권 분량)이라는 압도적인 컨텍스트 창 성능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AI 서비스 3강 체제는 이후 지속되며 위 3사가 생성형 AI 서비스 분야 선두로 자리잡았다.

Google, Anthropic, OpenAI 생성형 AI 특징, 장점, 단점

항목	구글 제미니(Gemini)	앤스로픽 클로드(Claude)	오픈AI 챗GPT(ChatGPT)
정의	● 구글이 개발한 멀티모달 기반의 통합 AI 플랫폼	● AI 안정성을 강조하는 앤스로픽의 텍스트코딩 특화 AI	●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AI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 플랫폼
핵심 모델	● Gemini 3.5 Flash / 3.1 Pro 등	● Claude Sonnet 5 / Opus 4.8 등	● GPT-5.5 Instant / GPT-5.4 Thinking 등
주요 특징	● 압도적인 컨텍스트 창: 최대 100만 토큰 처리 ● 구글 생태계 연동: 유튜브, 구글 문서, 지메일, 지도 등 실시간 데이터 결합 및 연동 강화	● Artifacts 기능: 코드, 웹 UI, 도표 시각화 전용 우측 창 제공 ● 인간 친화적 요소: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 역량	● 강력한 추론(Thinking): 복잡한 수학, 코딩 논리를 단계별로 생각하여 해결 ● 보이스 모드: 자연스러운 실시간 음성 대화
장점	● 대용량 파일을 한 번에 분석 가능 ● 최신 정보 탐색(구글 검색 융합) 및 시각화 자료 생성	● 텍스트 창작 및 논문 번역/요약 퀄리티가 가장 높음 ● 복잡한 코딩 프로그래밍 및 에이전트 수행 능력 탁월	● 논리적이고 정교한 복합 추론 문제 해결력 우수 ● 풍부한 플러그인(Custom GPTs) 및 실시간 스케줄 관리 기능 제공
단점	●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고도의 논리적 추론에서는 다소 평이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음	● 무료 버전의 사용량 제한이 타사 대비 엄격한 편 ● 이미지 생성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음	● 답변이 다소 기계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정형화된 느낌을 줄 때가 있음
추천 용도	● 자료 조사, 대용량 분석, 구글 연동 워크플로우	● 소셜메세지 집필, 논문 번역,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코딩	● 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논리 추론, 개인 비서, 학습 가이드

자료: 언론 등 종합,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하반기부터 생성형 AI
추론 시대가 전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성형 AI 추론(Inference) 시대가 열렸다. 스스로 단계를 나누어 깊게 생각한 뒤 답변하는 생성형 AI 추론은 2024년 9월경부터 시장에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OpenAI는 최초의 복합 추론 모델 'o1-preview(오원 프리뷰)'를 2024년 9월 공개했는데, 이전까지의 AI가 다음에 올 가장 알맞은 단어를 빠르게 예측하는 '직관적 답변(System 1)' 위주였다면, o1은 답변을 출력하기 전 내면에서 논리적인 사유 과정(Chain of Thought)을 거쳐 수학과 코딩을 풀어내는 '논리적 추론(System 2)' 모델이었다. 뒤이어 2024년 12월에 o1 정식 버전이 출시되며 이 흐름이 굳어졌으며, 오픈AI의 o1 출시 이후 Google은 Gemini Flash Thinking(2024년 12월)을, Anthropic은 추론 기능 중심의 차세대 Claude 모델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저비용 추론 모델 'R1'을 들고 나온 것도 이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에 있었다.

**추론형 AI의 본격화에 따라 공급
병목이 GPU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

2024년 말 오픈AI의 o1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추론의 시대'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Training)하는 단계였다면, 추론형 AI는 인간처럼 단계를 나누어 '깊게 생각(Chain of Thought)'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연산장치인 GPU에서 저장장치인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하게 되었다.

추론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이전 생각의 흔적을 저장할 저장공간이 중요해졌다. 추론형 AI는 답변을 내기 전 "만약 A라면 B고, 그렇다면 C다"라는 식의 중간 사고과정을 수없이 거친다. 이 긴 문맥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려면 AI가 방금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해 두는 임시 저장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KV 캐시(Key Value Cache)'라고 한다. 문제는 사용자와의 대화가 길어지고 AI의 추론 단계가 깊어질수록 이 KV 캐시가 메모리 용량을 엄청나게 잠식한다는 점이다. GPU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이 생각을 담아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면 시스템이 멈춰 서버당 수 TB(테라바이트)의 메모리가 요구되는 병목이 발생하는 것이다.
- 2) 폰 노이만 병목(Von Neumann Bottleneck)이 심화되었다.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에서는 연산 장치(GPU/CPU)와 데이터 저장 장치(메모리 반도체)가 분리되어 있다. AI가 깊은 추론을 할 때, GPU는 가만히 서서 메모리가 데이터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극심해진다. 즉, 연산 속도보다 데이터 이동 속도가 느려 전체 AI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메모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HBM 쇼티지가 범용 DRAM까지
이어지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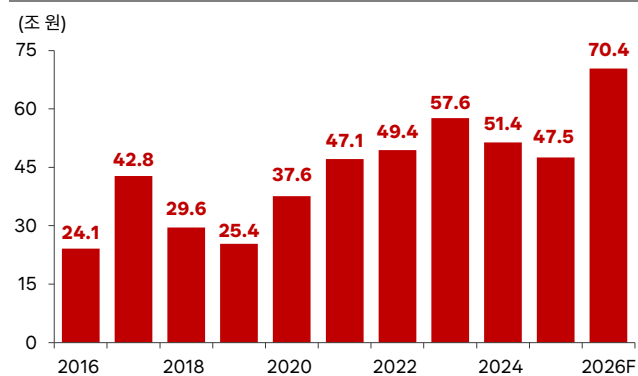
추론 시대에 접어들며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HBM 제품에 메모리 3사가 자원과 기술개발 노력을 집중하다 보니 범용 DRAM 수요조차도 관련 업체들이 대응하기 어려워 업계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4Q25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icron의 실적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는 물량 증가 및 수요 급증으로 인한 단가 상승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특히 빅테크 중심의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경쟁 속 메모리 반도체 제품단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업황 호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3사는 설비투자 확대 중

메모리 반도체 3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6년 4월 중순 시점 기준으로 20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 예상 금액 컨센서스는 각각 64.7조 원, 39.2조 원이었다. 2025년 양사의 실제 설비투자 금액은 각각 47.5조 원, 27.5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높은 증가세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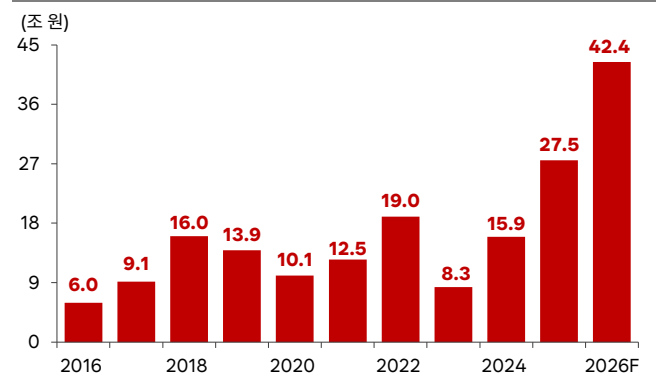
2026년 7월 초 현재 기준으로 2026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예상 금액 컨센서스는 각각 70.4조 원, 42.4조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4월 중순 시점 대비 양사 설비투자 예상 금액 수치가 각각 5.7조 원, 3.2조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불과 2개월여 만의 변화이고, 향후 더욱 상향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7월 중하순부터 주요 기업들은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예상 금액은 더욱 상향 조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추론된 AI 수요와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치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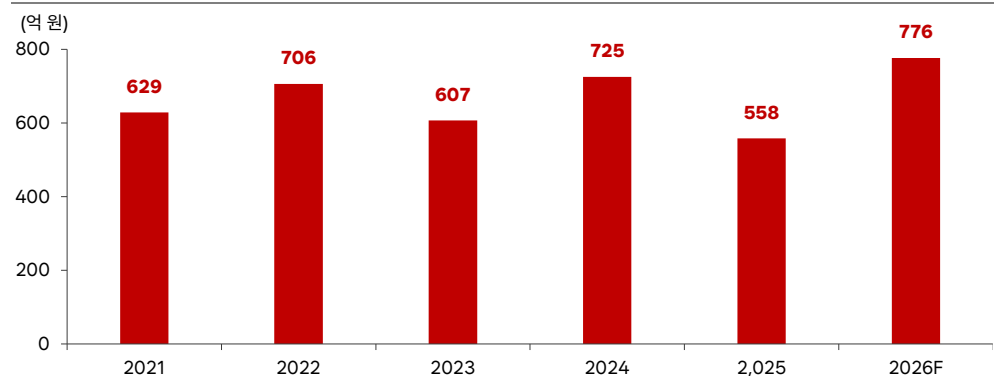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투자 기조는 반도체 장비 업체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

이러한 시장/기업 투자 기조로 인해 반도체 장비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로체시스템즈와 같은 장비 업체에게 이는 수혜일 전망이다. 로체시스템즈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반도체 장비 제품으로 Wafer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장비, Sorter, Wafer Stocker(웨이퍼 보관장비), Mobile Robot(AMR, 자율주행로봇), Near Tool Buffer(FOUP을 전달받는 장비) 등 다양한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의 설비투자 증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로체시스템즈 2026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776억 원으로 전년 558억 원 대비 3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EFEM 장비와 Sorter, Mobile Robot 제품 위주의 매출 증가세가 기대된다.

로체시스템즈 반도체 부문 매출액 연도별 추이 및 전망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고객의 해외 설비투자 증가로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 성장 기대

2H26 삼성디스플레이
8.6G IT용 OLED 생산라인
신규 가동 예정

삼성디스플레이는 2H26부터 8.6G IT용 OLED 생산라인의 신규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동 라인에서는 노트북, 태블릿 용 OLED 패널을 본격적으로 양산, 활발히 출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2H26부터 삼성전자와 애플향으로 폴더블폰용 패널 물량을 기존 대비 크게 증량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의 베트남 법인 후공정 투자 증가가 연중에 기대된다.

2H26 애플 최초 고사양 폴더블폰 출시 예상

애플은 2026년 하반기에 고사양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업체로서는 최초의 폴더블폰 제품 출시가 될 것으로, 글로벌 폴더블폰 전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등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 대비 이러한 폴더블폰 제품 출시는 매우 늦은 행보이다. 그러나 브랜드 파워와 스펙, 디자인 측면 등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예상된다. 출시 이후 상황을 점검해야겠으나, 향후 애플폴드 폴더블 패널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에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플 폴더블폰 신제품 사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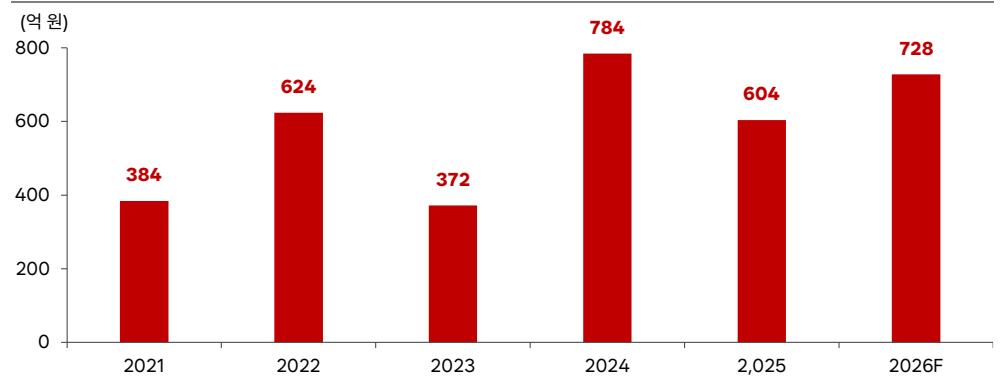
항목	예상 사양
제품명	아이폰 울트라 or 아이폰 폴드
출시 예정 시기	2026년 가을
디자인	펼쳐질 때 세로보다 가로가 넓은 '북형(book) 디자인' 티타늄 베젤초박형 구조(아이폰 에어 설계 일부 반영)
디스플레이	외부 5.3~5.5인치(넓은 화면비) 내부 7.6~7.8인치(아이패드 미니급) 내부 화면 주름 최소화, 홀펀치
카메라	후면 2개(4800만 광각 + 4800만 초광각, 망원 제외 가능성) 전면 2개(각 화면에 1개씩)
소프트웨어	iOS 27 기반, 멀티태스킹·아이패드형 앱 배치 (단 아이패드OS 전체 창 모드는 미지원 관측)
칩·메모리	A20 프로(2나노, 아이폰18 프로와 동일) + C2 모뎀 12GB RAM(LPDDR5 가능성)
생체인증	페이스ID 대신 전원 버튼 일체형 터치ID 유력
예상 가격	256GB 기준 약 1999달러(약 304만원)

자료: 나인투파이버맥, 디지털투데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로체시스템즈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728억 원으로
전망

로체시스템즈의 2025년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은 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었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 8.6G 생산라인 관련 장비 투자가 2024년에 주로 전공정 위주로 既 집행되어 2025년에 관련 수요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 요인들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의 베트남 법인 중심 후공정 투자 집행이 2026년에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로체시스템즈의 디스플레이 부문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728억 원을 전망한다.

로체시스템즈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 연도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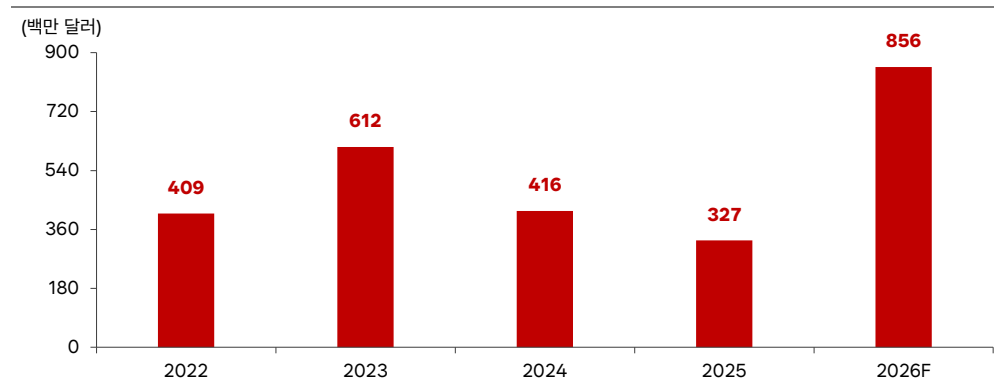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OLED 패널 업체들의 투자 확대 시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음

이 외에 중국 OLED 패널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하반기에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제2의 시장 붐업이 일어난다면, OLED 패널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다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경우 과거엔 삼성전자를, 이번에는 애플을 지켜보고 자극받아 폴더블폰 제품 라인업을 늘릴 개연성이 있다. 이는 폴더블폰용 패널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가 업계 內 광범위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는 로체시스템즈와 같은 장비기업에게 수혜일 전망이다.

Tianma CAPEX 추이 및 전망치



자료: LSEG,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249억 원(-22.0% YoY),
144억 원(-27.1%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249억 원, 144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 1,601억 원 대비 22.0% 역성장한 1,24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디스플레이 부문, 반도체 부문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을 리뷰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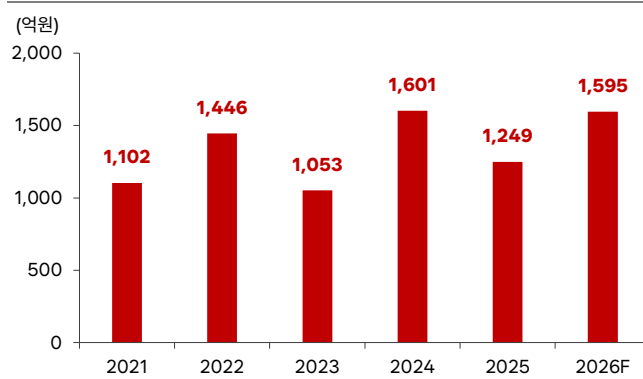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은 2024년 784억 원에서 2025년 604억 원으로 23.0% 하락했다. 2024년 삼성디스플레이 8.6G 라인투자 관련 장비 납품이 몰린 이후 기저효과가 발생한 점이 주 요인이었다.

반도체 부문 매출액도 2024년 725억 원에서 2025년 558억 원으로 23.0% 감소하였다. Mattson Technology향 반도체 장비 출하는 견조했으나,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향 직납 관련 각종 이송 및 물류장비, 기타 장비, Mobile Robot 등 납품이 주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경쟁사들 실적을 고려해 볼 때 경쟁 심화로 인해 일부 고객 內 납품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다소 약화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198억 원 대비 27.1% 줄어든 14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규모가 줄어든 만큼 고정비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고로, 2025년 연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78.1%, 10.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원가율은 0.6%p 개선되고, 판관비율은 1.4%p 악화된 수치였다. 2024년 연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각각 78.7%, 8.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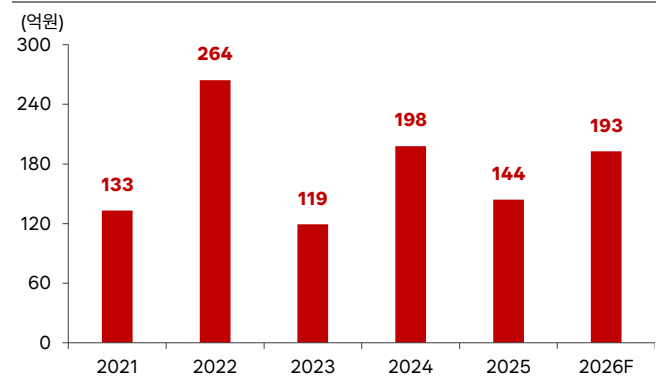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121억 원과 유사한 12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유사한 수치를 보인 것은 2024~2025년 영업외수지 중 금융원가 수치의 변동이 컸었기 때문이었다. 금융원가는 2024년 86억 원에서 2025년 31억 원으로 55억 원 급감했다. 2024년 당시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 거래로 인해 파생상품 거래손실이 74억 원 발생하였는데, 2025년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7억 원 실현되었던 점이 그 주요한 요인이었다.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F 실적 전망

**1Q26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400억 원(+32.4% YoY),
43억 원(-15.2%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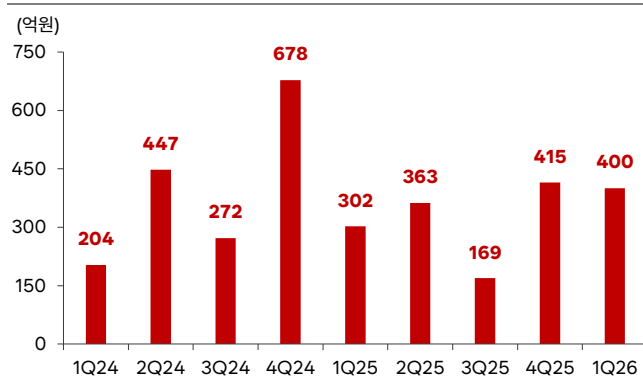
1Q26 매출액은 40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매출액 302억 원 대비 32.4%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그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은 1Q25 98억 원에서 1Q26 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억 원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이 해외법인 후공정 관련 수요가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 중화권 고객 수요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1Q25 184억 원에서 1Q26 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억 원 감소했다. 비록 1분기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수치가 감소했으나, 연중 가파른 증가가 기대된다.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주 고객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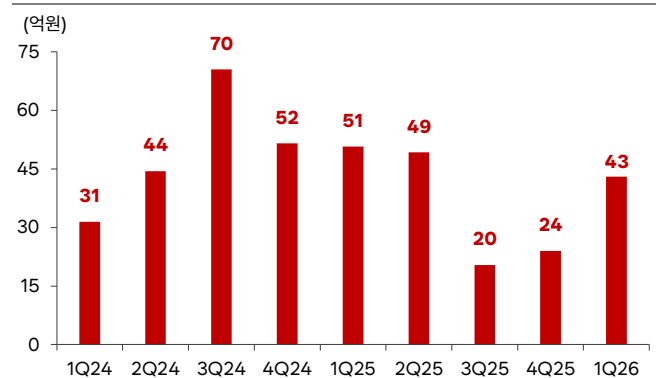
1Q26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51억 원 대비 소폭 약화된 43억 원을 기록했다. OPM은 전년 동기 대비 6.1%p 감소한 10.7%로 둔화세를 보였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음에도 1분기 출하 제품 중 저마진 제품이 늘어 제품 믹스가 일시적으로 약화된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분기 매출원가율, 판매비율은 각각 81.1%, 8.1%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원가율은 9.8%p 약화되었고 판매비율은 3.8%p 개선되었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연간 매출액

1,595억 원(+27.7% YoY),

영업이익

193억 원(+33.5% YoY)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595억 원(+27.7% YoY), 193억 원(+33.5% YoY)으로 전망한다.

매출액을 부문별로 전망해 보면, 아래와 같다.

디스플레이 부문의 경우,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5% 성장한 728억 원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 해외 후공정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1분기 견조한 수요로 이는 일부 확인되고 있다.

반도체 부문 20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0% 증가한 776억 원으로 전망한다. AI 추론 시대 도래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어서 이의 수혜가 기대되는 점을 고려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144억 원에서 33.5% 늘어난 193억 원으로 전망한다. 매출액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고부가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도체 부문 매출 성장이 기대되어 전사 수익성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되 그 폭은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2026년 예상 연간 영업이익률은 12.1%로, 2025년 11.6% 대비 0.5%p 개선을 전망한다.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102	1,446	1,053	1,601	1,249	1,595
① 디스플레이	384	624	372	784	604	728
② 반도체	629	706	607	725	558	776
③ 기타	90	116	74	91	86	91
영업이익	133	264	119	198	144	193
지배주주순이익	95	203	89	121	123	168
YoY 증감률						
매출액	-38.8	31.2	-27.2	52.1	-22.0	27.7
영업이익	43.8	98.5	-54.9	65.8	-27.1	33.5
지배주주순이익	12.9	114.1	-56.2	36.6	1.2	36.7
영업이익률	12.1	18.3	11.3	12.4	11.6	12.1
지배주주순이익률	8.6	14.0	8.4	7.6	9.8	10.5

자료: 로체시스템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F PER 5.7배로 거래 중

로체시스템즈는 코스닥 시장 대비
할인되어 거래 중. Peer로는
SFA, 라온로보틱스, 싸이맥스
선정

2026년 7월 9일 기준 로체시스템즈 시가총액은 956억 원 수준이다. 2026F 로체시스템즈의 예상 PER은 5.7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 23.6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로체시스템즈는 오랜 기간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여, 반도체 장비로 제품 다각화를 진행해 온 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국내 상장 기업으로는 SFA, 라온로보틱스, 싸이맥스 등이 있다. 동사 Peer로 SFA와 라온로보틱스, 싸이맥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 기업간 비교 지표로는 2026F PER을 선택했다(SFA는 시장 컨센서스 적용, 라온로보틱스와 싸이맥스는 컨센서스 부재로 당사 리서치센터 전망치 적용).

2026F 기준 4개사의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5.7배 VS SFA 9.0배 VS 라온로보틱스 18.7배 VS 싸이맥스 11.7배).

동사가 Peer 대비 PER 할인을 받는 것은 디스플레이 이송장비 매출 비중이 높아,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중심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EFEM 1위 업체인 일본 Rorze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한 점은 여타 Peer 대비 차별화된 강점이다.

SFA 2026F PER은 9.0배로, 동사 대비 할증을 받고 있다. 단순 이송장비를 넘어 소프트웨어·시스템 통합 기반의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점이 차별점이다. 또한 이차전지·반도체 후공정 등 성장 분야로의 확장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보인다.

라온로보틱스 2026F PER은 18.7배로, 동사 대비 할증을 받고 있다. 기술 장벽이 높은 반도체 진공(VTM) 로봇을 생산하는 국산화 선도 기업으로, 높은 진입장벽과 해외 고객사향 공급 확대 기대감이 성장 프리미엄으로 반영되고 있다.

싸이맥스 2026F PER은 11.7배로, 동사 대비 할증을 받고 있다. EFEM 중심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고객사에 이송장비를 공급하여, 최근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의 직접적 수혜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총액 (십억원, 백만달러)	매출액(십억원, 백만달러)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7,292	5,787,524	3,712,325	3,917,205	4,043,625	11.3	15.4	7.5	0.8	1.3	1.8
코스닥	794	446,768	332,644	361,445	129,370	211.4	112.4	23.6	1.5	2.1	2.8
로체시스템즈	6,250	96	160	125	160	22.3	11.0	5.7	2.2	1.0	0.6
SFA	21,000	754	2,045	1,631	1,680	-9.6	15.3	9.0	0.7	0.7	0.6
라온로보틱스	8,270	110	49	54	62	14.9	49.4	18.7	2.3	4.9	2.6
싸이맥스	27,950	305	165	164	232	6.1	10.7	11.7	0.5	0.8	1.4
동종업종 평균						3.8	25.1	13.1	1.1	2.1	1.6

주: 1) 2026년 07월 09일 종가 기준, 2) SFA 26F는 시장 컨센서스 사용, 3) 라온로보틱스, 싸이맥스 26F는 당사 추정치 사용

자료: FnGuide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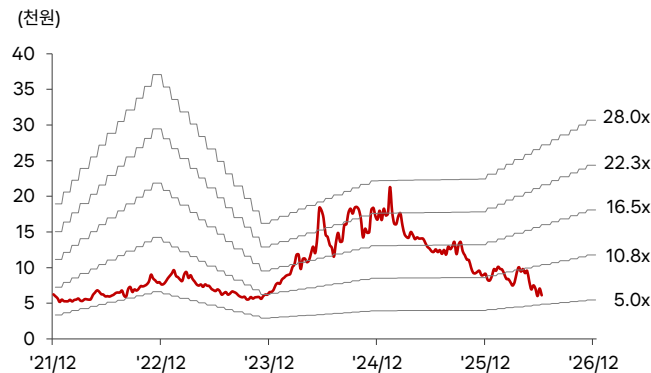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 투자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지속되는 경우 실적 모멘텀 및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기대**

로체시스템즈 주가는 2025년 연간 약 50.1% 하락했다.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1,249억 원, 14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22.0%, -27.1% 하락했기에, 기업가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인다. 2026년 들어서도 로체시스템즈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 말 주가 8,830원 대비 26.07.09 현재 주가는 6,250원으로 30.5% 하락했다. 26.05.29 주가가 8,100원으로 연초 이후 약세는 보이되 큰 주가 하락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6월초 이후 주가 하락이 가파른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로체시스템즈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주로서 시장 내 주목도가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 급락과 같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로의 시장 쏠림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5월 월간 -9.9%, 6월 월간 -14.8%, 7월 월중 -14.3% 약세를 시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사는 과거 PER Band(5.0x~28.0x)와 PBR Band(0.6x~2.7x) 양측 모두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25년 실적 부진과 코스닥 소외 등 부정적 요인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며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아진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AI 붐 수혜가 지속되며 메모리 반도체 투자 낙수 효과가 뚜렷이 이어지고,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기조적으로 지속된다면 2025~2026년 연속적인 기업가치 약세 국면을 딛고 동사 주가는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이 부각되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로체시스템즈 PE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로체시스템즈 PBR Band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㉑ 폴더블폰 산업이 예상 외로 부진할 시 동사 실적이 일정 부분 악화될 가능성 有

폴더블폰 부진으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기대에
미달 시 실적은 부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有

2H26부터 애플 폴더블폰 신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만큼 글로벌 폴더블폰 산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2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폴더블기기 즉 폴더블 태블릿, 폴더블 노트북 등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쓰임새는 구조적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어 이는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에 긍정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폴더블폰 제품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부진할 시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이 기대보다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사 실적이 일정 부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46	1,053	1,601	1,249	1,595
증가율(%)	31.2	-27.2	52.1	-22.0	27.7
매출원가	1,057	830	1,260	976	1,265
매출원가율(%)	73.1	78.8	78.7	78.1	79.3
매출총이익	389	222	341	273	330
매출이익률(%)	26.9	21.1	21.3	21.8	20.7
판매관리비	125	103	143	129	137
판매관리비율(%)	8.6	9.8	8.9	10.3	8.6
EBITDA	292	147	228	176	229
EBITDA 이익률(%)	20.2	13.9	14.3	14.1	14.4
증가율(%)	79.2	-49.8	55.5	-22.9	30.2
영업이익	264	119	198	144	193
영업이익률(%)	18.3	11.3	12.4	11.6	12.1
증가율(%)	98.5	-54.9	65.8	-27.1	33.5
영업외손익	-5	-2	-41	10	11
금융수익	1	17	42	39	43
금융비용	1	27	86	31	35
기타영업외손익	-5	8	3	3	3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59	117	157	154	204
증가율(%)	119.2	-54.9	34.3	-1.7	32.1
법인세비용	56	28	36	32	36
계속사업이익	203	89	121	123	16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03	89	121	123	168
당기순이익률(%)	14.0	8.4	7.6	9.8	10.5
증가율(%)	114.1	-56.2	36.6	1.2	36.7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203	89	121	123	16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0	168	53	230	154
당기순이익	203	89	121	123	168
유형자산 상각비	27	26	29	30	31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6
외환손익	10	5	2	9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56	26	-107	61	-50
기타	65	21	7	6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2	-52	-127	-41	-3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1	0	0
유형자산의 감소	2	0	2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1	-3	-64	-29	-30
기타	-23	-49	-54	-12	-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	-30	-30	21	-8
차입금의 증가(감소)	-22	-22	-22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	-7	-7	-7	-8
기타	0	-1	-1	28	0
기타현금흐름	-8	-5	6	1	-10
현금의증가(감소)	-46	82	-98	211	101
기초현금	315	270	352	253	464
기말현금	270	352	253	464	565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767	778	915	926	1,155
현금성자산	270	352	253	464	565
단기투자자산	29	23	59	38	49
매출채권	176	141	324	178	227
재고자산	270	193	247	219	279
기타유동자산	22	70	32	27	34
비유동자산	570	590	659	697	696
유형자산	497	481	520	519	518
무형자산	9	8	10	38	37
투자자산	33	37	70	66	66
기타비유동자산	31	64	59	74	75
자산총계	1,338	1,368	1,575	1,624	1,851
유동부채	271	251	345	241	308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36	70	171	110	140
기타유동부채	135	181	174	131	168
비유동부채	22	0	7	5	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2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7	5	6
부채총계	293	252	352	246	313
자배주주지분	1,045	1,116	1,223	1,378	1,538
자본금	76	76	76	76	76
자본잉여금	210	210	210	221	221
자본조정 등	-18	-18	-18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3	-1	-2	-2
이익잉여금	776	850	955	1,082	1,242
자본총계	1,045	1,116	1,223	1,378	1,538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6.0	10.7	22.3	11.0	5.7
P/B(배)	1.2	0.9	2.2	1.0	0.6
P/S(배)	0.8	0.9	1.7	1.1	0.6
EV/EBITDA(배)	3.3	4.1	10.5	4.8	1.5
배당수익률(%)	0.6	0.8	0.3	0.6	0.8
EPS(원)	1,324	580	792	801	1,096
BPS(원)	6,829	7,298	7,992	9,007	10,052
SPS(원)	9,452	6,882	10,465	8,163	10,425
DPS(원)	50	50	50	50	50
수익성(%)					
ROE	21.5	8.2	10.4	9.4	11.5
ROA	15.7	6.6	8.2	7.7	9.6
ROIC	32.5	12.9	20.7	14.8	20.3
안정성(%)					
유동비율	283.1	309.3	265.3	384.3	375.3
부채비율	28.0	22.5	28.8	17.9	20.4
순차입금비율	-24.4	-31.6	-25.2	-36.2	-39.7
이자보상배율	214.1	226.4	488.3	782.4	1,012.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0.8	1.1	0.8	0.9
매출채권회전율	8.7	6.6	6.9	5.0	7.9
재고자산회전율	6.3	4.5	7.3	5.4	6.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로체시스템즈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14	로체시스템즈-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수혜가 기대된다
2023.05.17	로체시스템즈-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분야 좋은 파트너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